송광사, 금강산림 대법회 입재

12월 5일까지 매주 특별법문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진화)는 10월 17일 사자루에서 '제13회 금강산림 대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금강산림 법회는 매년 송광사에서 봉행하는 열린 강좌 형식의 법회로 올해에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지운 스님(前송광사 강주), 영명 스님(신행선원장), 혜자 스님(도안사 회주 · 군종교구장), 현진 스님(통도사 승가대학장), 현응 스님(조계종 교육원장), 무상 스님(조계종 호계원장), 지현 스님(송광사 율주) 등이 강사로 나서 매주 특별법문과 함께 49일간 매일 영가천도 의식을 봉행하고 12월 5일 회향한다.

17일 열린 입재식에는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조계총림 유나 현묵 스님이 방장 보성 스님을 대신해 법석에 올라 법문을 진행했다.

현묵 스님은 금강산림 대법회를 시작하면서 법회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불자들의 수행을 독려했다. 스님은 "모든 분별과 망상은 허망한 것"이라며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 본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고 근본 자리를 보면 보는 즉시 부처님을 친견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묵 스님은 또 "〈금강경〉은 무상정각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육조 스님 말처럼 일념 일념으로 참구하면 도달하는 일이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런 법회를 통해 정진하는 마음을 챙기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설씨부인 공덕, 연극으로 기려

순창 강천사, 제1회 명상예술제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순창 강천사(주지 종고)가 첫 번째 명상예술제를 개최했다.〈사진〉

10월 14일 강천사 만세루에서 열린 명상예술제는 조선왕조 최초의 여성문장가이자 광덕산 부도암(현재의 강천사)을 중창하기 위해 보물 728호 〈설씨부인 권선문〉과 화첩을 지은 설씨부인의 공덕을 기리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강천사 명상예술제가 펼쳐지는 강천사 도량 곳곳에는 손바느질 시연, 다도체험, 다도와 춤 그리기 등의 체험행사가 열렸다. 또 선 불교무용단체인 금비예술단(단장 전영순)은 직접 각색하고 연출한 창무극 '설씨부인 춤으로, 그리고 잇다'를 선보였다.

명상예술제에 앞서 진행된 기념식에는 前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총무국장 심학 스님, 기획실장 대선 스님, 순창사암연합회장 청암 스님을 비롯한 지역스님과 황숙주 순창군수, 순창 설씨 종친들과 각급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아시아 古都를 논하다

백제세계유산센터, 10월 18~20일 학술대회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재)백제세계유산센터(이사장 남궁영)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롯데 부여리조트 사비홀 등지서 '동아시아의 세계유산 그리고 고도'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총 3부의 기조강연을 비롯, 9회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 대회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김병모 교수의 '동아시아의 세계유산 그리고 고도'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부 '세계유산과 고도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19일 오전에는 학술대회 3부 '세계유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한필원 한남대 교수의 '한국 세계유산의 보호 · 관리 및 홍보 · 활용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하고, 2부 행사인 18일 오후에는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 운노 사토시의 '일본의 세계유산 나라의 현재 · 미래와 동아시아'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신성민 기자

"중생심 버리고 출가수행자로"

태고종 수계산림 회향
사미(니) 총 48명 배출



수계산림을 마친 행자들이 삼사 · 칠증사에게 연비를 받으며 출가사문으로서의 원력을 되새기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백운)의 새로운 출가수행자 탄생을 알리는 '제42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회향법회 및 수계식'이 10월 18일 순천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열렸다. 이날 수계식을 통해 48명(사미 33명, 사미니 15명)의 스님이 탄생됐다.

월조 스님(선암사 교무국장)의 인례와 인산 스님(총무원 교무국장)의 집전으로 시작된 법회는 타종, 종사이운(종정, 삼사 · 칠증), 삼귀의, 반야심경, 선조사 스님에 대한 묵념, 청법게, 종정 법어, 경과보고 등으로 1부가 진행됐다.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 수계하시는 행자 여러분들에게 3개월 동안 수고 많이 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다"며 "불교의 큰 뜻은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권장해 수많은 중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수계산림 교육 우수자 표창식에서는 최우수상(총무원장 시상)에 도훈(오일록) 행자, 우수상(정수원장)에 법우(김춘호) 행자, 봉사상에 건휴(최준원) 행자, 모범상에 지현(이호복) 행자가 각각 선정됐다.

스님이 되기 위한 수계의식은 행자들의 호계합장과 삼사 · 칠증을 모시는 것으로 시작됐다. 수계자들은 3배를 올린 뒤 호궤합장 하며 "원컨대 큰스님은 수계본사가 되어 주소서. 저희들은 덕 높으신 큰스님을 의지해 사미(니) 십계를 받사옵고 부처님의 올바른 불제자가 되겠사옵니다"라고 청사를 올렸다.

이날 삼사는 전계아사리 총무원장 백운 스님, 갈마아사리 종회의장 설운 스님, 교수아사리 호법원장 지현 스님이 참여했다. 행자들은 10가지의 계를 청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3배를 했으며, 행은(임동묵) 행자의 대표삭발에 이어 참회진언 합송과 연비가 진행됐다.

십계에 대한 다짐과 연비가 끝난 행자들은 첫 가사를 착의하는 의식을 통해 어엿한 스님으로 거듭났다. 정대게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48명의 수계대중은 태고종의 상징인 홍가사를 수하며 출가수행자로 탄생했다.

한편 이날 새로운 스님으로 탄생한 수계자들은 지난 7월 20일 입소를 시작으로 사미율의, 기초습의, 초발심자경문, 부처님 생애 및 기초교리, 예경 및 의식습의, 종지 · 종풍과 종단사, 울력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특히 수계식 전날 삼보일배를 통해 수행자로서의 염원을 간직했다. 계를 받은 사미, 사미니는 향후 선암사 강원과 동방불교대학교, 중앙승가강원 등에서 수학할 수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영산재 문화재 가치 알리다

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
광주영산재 보존시연회



영산재 시연회에서 화려한 영산작법무를 선보이는 스님들.

(사)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회장 월인)는 10월 15일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제13차 전통불교영산재 보존시연회'를 열었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광주영산재'의 시연을 위한 이 행사는 불자들과 시민들에게 영산재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행사에는 지암 스님(태고종 원로의원)을 증명법사로 혜령 스님(율곡사 주지 · 범음 이수자), 월인 스님(작법 이수자), 호산 스님(곡성 무각사 주지 · 바라 이수자)을 비롯해 전수생과 임우진 서구청장, 신도 등 200여 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연(輦)에 모셔진 영가를 도량으로 인도하는 시련과 영가를 부처님의 위신력과 감로의 법으로 깨끗이 씻기는 대령관욕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법회의 식인 상단권공과 가장 화려한 작법무인 나비춤, 바라춤이 진행되자 참석한 대중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어 신중단 기도를 하기 위한 중단퇴공과 불법을 옹호하는 신중을 청해 모시는 관음시식은 법회의 백미를 장식했다.

행사를 준비한 월인 스님은 시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후학교육을 위해 전수관을 추진하고 있다. 전수관을 통해 불교계에서 영산재가 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존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봉서사와 서울 봉원사 영산작법을 전수받은 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는 지난 1992년 창립됐다. 매년 시연회와 연수교육, 정회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5.18민주항쟁 희생자 위령제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전야 위령제, 빛고을관등회 시연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 같은 활동으로 2014년 7월 24일 광주시 무형문화재로 등재돼 현재 후학양성을 위한 전수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공군 호국 충렬사 군 장병 위문법회

여산 법사, 바비큐파티 제공

공군 8325부대 호국 충렬사(지도법사 여산 김윤봉)가 부대안전과 장병들의 안전한 군복무를 기원하는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10월 18일 부대 체력단련장에서 열린 이번 위문행사는 부대장 정지웅 소령을 비롯한 부대관계자, 군인 가족, 장병 등 15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위문법회에서 장병들을 위해 바비큐 파티를 제공한 김윤봉 법사는 인사말을 통해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군 복무 중인 장병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군 복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웅 부대장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긴장을 늦추기 않고 영공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장병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준 불교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군 호국 충렬사는 과거 봉수대가 있던 군사적 요충지로 서해 영공을 책임지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외국인복지센터 한국어 말하기 대회

온판비세스 씨 대상 수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대회가 열렸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10월 15일 하남산업관리공단 대강당에서 외국인근로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회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1차 심사를 거쳐 2차 본선에 오른 9개국 총 15명이 참여한 결선대회에서는 온판비세스(캄보디아) 씨가 '한국말을 배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대보(동티모르), 우수상은 파우지(인도네시아)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주성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차별과 소외받지 않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비전사 주지 보혜 스님은 축사에서 "올바른 한국어 사용을 통해 사회통합과 더불어 일하는 사업장에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봉 행

사단법인 한국불교선조계종
창종 4주년 기념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단은 창종4주년기념법회 및 종정 이.취임식을 봉행함을 제방에 사룁니다.

종 정 : 예호당 법경
원로의장 : 정인 원 로 : 지선.혜원.월현.정광
총무원장 : 법성 종회의장 : 법륜
문화원장 : 혜관 포교원장 : 보덕 호법원장 : 도원
비구니원장 : 진언
고시위원 : 정인.혜관.정광.도원.법원
종회의원 : 법경.정인.월현.정광.법성.법륜.혜관.보덕.법원.도원.진언
종회임원 : 법정.정운.지산.법안.해운.도현.무상.향적.청담
법인.정인.해산.법일.성본.고산.도경.황산.청인
원경.법진.지호.도선.공태건.광명화

■ 일 시 : 2017년 10월 31일 (음력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32-13 성원사

종도모집

문화관광부 허가 2010-4호 등기번호 001856

사단법인 한국불교선조계종은 교육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설법하신 법문을 모아놓은 경장과 수행자가 지켜야할 율장과 부처님의 대를 이어 깨달음을 얻은 조사 스님들이 모아놓은 논장 경.율.논 삼장인 불.법.승 경전과 범음범패를 교육하는 종단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본 종단과 뜻을 함께 하고져하는 재방의 뜻있는 대덕 큰스님과 종도 여러분을 모시려고 하오니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반명함판, 사찰사진
■ 총 무 원 : 대구광역시 북구 작원길9 성불사
■ 문 의 : 전화 053)322-0567
H·P 010-6537-0567

사단법인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 대구시 북구 작원길 9 전화 053)322-0567 / 010-6537-0567